

월드컵 예선 이재익 깜짝 발탁...손흥민·이강인도 소집

◆월드컵 예선 스리랑카전 (10월10일) 북한전(10월15일) 소집명단(25명)

△GK: 김승규(울산현대) 조현우(대구FC) 구성윤(נס사도레 샛포로)

△DF: 김영권(갑마 오사카) 김민재(베이징 궈안) 박지수(광저우 에버그란테) 권경원(전북현대) 이재익(알라이안) 홍철(수원삼성) 김진수(전북현대) 이용(전북현대) 김문환(부산아이파크)

△MF: 정우영(알 사드) 백승호(디름슈타트) 황인범(벤투루) 이강인(발렌시아)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재석(울슈타인 킬) 남태희(알사드) 이동경(울산현대)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황희찬(레드불 잘츠부르크) 나상호(FC도쿄)

△FW: 김신욱(상하이선화) 황의조(지롱댕 보르도)

남태희·김문환·김신욱 재소집...김태환·김보경·이정협 제외

오는 10일 스리랑카·15일 평양에서 북한과 2차 예선 2,3차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3차전에 나설 벤투호 멤버가 공개됐다.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과 황의조(27·지롱댕 드 보르도), 권창훈(25·프라이부르크) 등 최정에 멤버가 소집됐다. 아울러 이재익(20·알라이안)이 벤투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김문환(24·부산아이파크)과 남태희(28·알사드)도 다시 소집됐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3차전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0일 화성중

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스리랑카, 10월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3차전을 각각 치른다.

벤투호는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을 비롯, 최근 유럽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23·레드불 잘츠부르크), 황의조(27·지롱댕 보르도)에 신성 이강인(18·발렌시아) 등 최정에 멤버로 나선다.

여기에 새 얼굴로 이재익을 발탁해 센터백 라인에 변화를 준다. 벤투 감독은 "이재익의 경우, 연령 별 대표팀,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지켜봤다. 지금 시기에 이재익과 훈련하면서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부상으로 지난 A매치 2연전(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전)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남태희(28·알사드)와 김문환(24·부산아이파크)도 재소집됐다.

반면 K리그 김태환(30), 김보경(30·이상 울산현대)과 이정협(28·부산아이파크)은 제외됐다. 지난 9월 A매치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동경(22·울산현대)은 포함됐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기용됐던 김신욱(31·상하이선화)도 가세했다.

대표팀은 오는 7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9일 1차전 장소인 화성으로 이동한다. 1차전을 치른 뒤 북한으로 이동하는 일정은 미정이다. 벤투 감독은 "이동, 잔디 등 모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0월 A매치 2연전(스리랑카전, 북한전)에 나설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벤투호는 다음 달 7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발을 맞춘 뒤 10월10일 스리랑카와 홈 경기를, 10월15일에는 북한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를 예정대로 평양 원정으로 치른다.

든 변수에 대해 안을 마련하고 대응 중이다. 마련한 안 중에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와 H조에 편성된 한국은 11월14일 레바논과의 홈 4차전을 끝으로 2019년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국은 지난달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삼성 라이온즈 파격 선택

신임 감독에 허삼영 전력분석팀장



삼성 라이온즈가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신임 감독에 허삼영 전력분석팀장을 선임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달 30일 허삼영 전력분석팀장을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등 3년간 총액 9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올해 만 47세인 허삼영 감독은 1991년 삼성에 고졸연고구단 자유계약 선수로 입단해 5년간 현역으로 뛰었다. 1군 통산 성적은 4경기 2 1/3이닝 평균자책점 15.43이 전부다.

그러나 성실함을 인정받아 1996년 훈련지원요원으로 입사했다. 1998년 이후에는 전력분석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감독 선임 이전까지는 전력분석팀장과 운영팀장을 겸임했다.

허삼영 감독은 특히 데이터 야구에 강점을 갖고 있다. 삼성이 2018시즌부터 라이온즈파크에 트랙맨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세계 1위’ 고진영 “도쿄 올림픽 메달까지 획득하고 싶다”

오는 3일 KPGA 투어 하나금융 챔피언십 출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진영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나가는 것 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면서 "올림픽 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저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

다"고 밝혔다.

세계랭킹 1위인 고진영은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다. 고진영은 "메달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 선수들이 얘기해줬다"며 "최선을 다하고 하늘이 도와준다면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영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2승을 비롯해 총 4승을 올리며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최저 타수상,

레이스투 CME 글로벌(각 대회마다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최종전 후 100만달러 보너스가 부여되는 제도) 등 각종 부문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고진영은 "LPGA투어는 경쟁한 선수들이 많아 욕심을 부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가장 받고 싶은 타이틀은 베어 트로피(최저 평균 타수상)다. 최저 평균 타수상을 한 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고진영은 10월3일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오션코스(파72·6601야드)에서 열리는 하나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출전해 정상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이 대회의 전신으로 LPGA투어 대회로 진행됐던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2017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고진영 외에 호주 교포 이민지(23), 재미교포 노예림(18), KLPGA투어 시즌 2승을 올린 루키 임희정(19·한화큐셀), 중국의 수이샹(20), 필리핀의 사소유카(18) 등도 출전해 우승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강인, 발렌시아 활약 앞세워 2연속 벤투호 승선... “수비는 보완해야”

이강인(18·발렌시아)이 소속팀에서의 맹활약으로 또 다시 파울루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9월에 이어 2연속 벤투호 승선이 다.

지난 5일 조지아전에서 선발 출전하며 만 18세198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A매치 데뷔 7위 기록을 갖게 된 이강인은 내년 김에 A매치 데뷔골도 노린다.

이강인은 지난 3월, 9월에 이어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6월 A매치 2연전(호주, 이란전)에는 2019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일정에 포함돼 출전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9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벤투 감독은 "이강인은 정말 능력 있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라며 "소속팀에서의 경쟁이 쉽지 않지만 발렌시아 자체가 스페인 명단 구단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해도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 한해 발탁할 수 있다"고 밝

힌 바 있다. 그 예외 케이스 중 하나가 이강인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마르셀 리노 가르시아 토탈 감독 체제에서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한 이강인은 알베르트 셀라레스 감독 부임 후 차츰차츰 출장시간을 늘렸다.

거기에 지난 26일 헤타페와의 2019-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홈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비롯해 팀이 기록한 세 골 모두에 관여하며 맹활약했다.

벤투 감독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꾸준히 보고 있다. 상당히 기술이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경기 중 여러 상황에서 본인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차켜 세웠다.

이어 "개성, 보완점도 있는 선수다. 수비력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송정이→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